

탁록(涿鹿)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김 진 경

차례

I. 머리말

II. 사서와 고지도 등에 나타나는 탁록

1. 『사기』
2. 『한서』와 『후한서』
3. 『진서』, 『대청광여도』, 『중국고대지명대사전』 등

III. 탁록의 위치 비정

1. 유주의 위치
2. 상곡군, 탁군, 광양군, 광녕군 등의 위치
3. 탁현, 탁록현, 광녕현, 회융현, 유성현 등의 위치

IV. 맺는말

【국문요약】

『사기』와 『규원사화』 등에 따르면 현원과 치우가 탁록의 별관에서 전쟁을 하였다. 그리고 『사기』·『한서』·『후한서』 등에는 탁록의 별관이 상곡군 탁록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대청광여도』에는 탁록이 현재의 북경인 순천부 서쪽에 표기되어 있으며 현대 지도상에도 같은 위치에 현재의 하북성 탁록현이 표기되어 있다.

한편, 『사기』와 『한서』 지리지의 주해(집해, 응소)에 치우의 무덤이 동평군 수장현 감향성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대청광여도』 상에 표기되어 있는 탁록과 동평은 남북으로 수백 km 이상 떨어져 있다.

즉,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치우와 현원의 전쟁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지, 실제 역사라면 그 전쟁에 관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규원사화』에서 치우의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명의 올바른 위치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서와 고지도 등에 근거하여 유주 상곡군 탁록현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탁록현의 위치를 현재의 산서성 고평시 서남쪽 주변 인근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주제어 : 탁록(涿鹿), 상곡(上谷), 치우(蚩尤), 현원(軒轅), 전쟁, 고평(高平)

I. 머리말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 중국 25사의 첫 번째 역사서로서 오제(五帝)를 맨 처음에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역사는 오제부터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사기』 권제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따르면 현원(軒轅)과 치우(蚩尤)가 탁록(涿鹿)의 벌판(野)에서 전쟁을 하였으며, 현원이 치우를 죽임으로써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천자(天子)가 되었는데 황제(黃帝)라고 불렀다.

그런데 조선 숙종 2년(1675년) 3월에 북애(北崖)가 지은 『규원사화』에 따르면 현원이 군사를 일으켜 치우씨에게 도전했는데 치우씨는 탁록에서 현원을 맞아 크게 싸웠다. 또 치우씨는 회대(淮岱)와 기연(冀堧)을 모두 차지하고 탁록에 성을 쌓았으며 치우씨가 10년 동안 현원과 70여 차례 전쟁을 하였다. 불행하게도 부장 한 사람이 공을 서둘러 세우려 하다가 전쟁 중에 죽었는데 『사기』에서 이를 치우씨를 사로잡았다고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사기』와 『규원사화』 간에 현원과 치우가 탁록에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같으나 치우가 전쟁에서 사로잡혀 죽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치우와 현원의 전쟁이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 또는 사마천이 어떤 기록에 근거하여 치우와 현원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논란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탁록의 벌판이 중국 하북성 소오대산 북쪽에 있으며 현재의 북경에서 서쪽에 있다. 그 근거는 청(淸) 대 1785년에 제작된 『대청광여도』 상에 표기되어 있는 탁록의 위치이다.¹⁾ 또 현대 지도상에도 같은 위치에 탁록현(하북성)이 표기되어 있다.

한편, 『사기』의 주해(집해)와 『한서』 지리지 주해(응소)에서 치우의 무덤은 동평군(東平郡) 수장현(壽張縣) 감향성(闕鄉城)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치우가 황제와 전쟁을 벌인 탁록의 벌판이 치우의 무덤과 남북으로 수백 km이상 떨어져 있다.

그런데 치우의 무덤이 산둥성 동평군(東平郡) 수장현(壽張縣) 감향성(闕鄉城) 안에 있다면 치우가 살던 본거지가 산둥성 지역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1) 『대청광여도』, 1785년, 강희(康熙) 연간의 사람인 채방병(蔡方炳)이 목판(木版)으로 제작한 원도(原圖)에 일본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년)가 교정한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가 대영도서관(大英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 규슈대학 종합연구박물관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였다. 크기는 190cm×186cm이다.

치우의 원래 본거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여도 치우가 현원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산둥성 동평군으로부터 하북성 탁록현까지 이동하였는지, 또는 전쟁이 끝나고 하북성 탁록현에서 산둥성 동평군으로 돌아온 것인지 명료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즉, 탁록의 별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면 치우와 현원의 전쟁이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 또는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청광여도』의 지명표기가 올바른 것인지, 또는 『규원사화』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지명의 비정은 최종적으로 유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리적 좌표 상의 위치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적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장 유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본 논문을 통하여 『사기』를 비롯하여 중국 25사 등 사서 상의 기록에 근거한 탁록의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즉,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명의 위치는 역사적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사서와 고지도 등에 나타나는 탁록

1. 『사기』

『사기』 권제1 오제본기(五帝本紀) 제1권²⁾에 따르면 현원(軒轅)은 치우(蚩尤)와 탁록(涿鹿)의 별판(野)에서 전쟁을 하였다. 마침내 치우를 죽임으로써 제후들이 현원을 천자(天子)로 추대하였으며 현원은 신농씨(神農氏)의 대를 이어 황제(黃帝)가 되었다.

그런데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주해(註解)에 따르면 탁록의 위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집해(集解)³⁾에 따르면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탁록은 산 이름인데 탁군(涿郡)에 있다고 했으며, 장안(張晏)이 말하기를 탁록은 상곡(上谷)에 있다고

2) 사기(史記)』 제1권 오제본기(五帝本紀):

黃帝者，少典之子，姓公孫，名曰軒轅。……軒轅之時，神農氏世衰。諸侯相侵伐，暴虐百姓，而神農氏弗能征。於是軒轅乃習用干戈，以征不享，諸侯咸來賓從。而蚩尤最爲暴，莫能伐。炎帝欲侵陵諸侯，諸侯咸歸軒轅。軒轅乃修德振兵，治五氣，五種，撫萬民，度四方，教熊羆貔貅猛虎，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三戰，然後得其志。蚩尤作亂，不用帝命。於是黃帝乃徵師諸侯，與蚩尤戰於涿鹿之野，遂禽殺蚩尤。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代神農氏，是爲黃帝。天下有不順者，黃帝從而征之，平者去之，披山通道，未嘗寧居。東至于海，登丸山，及岱宗。西至于空桐，登雞頭。南至于江，登熊·湘。北逐葷粥，合符釜山，而邑于涿鹿之阿。

3) 집해(集解)는 남조 송(宋) 대의 배인(裴駰)이 주해한 것임.

했다. 또 색은(索隱)⁴⁾에 따르면 탁록(濁鹿)이라고도 했으며 상곡에 탁록현(涿鹿縣)이 있었으므로 복건이 말한 것처럼 탁군에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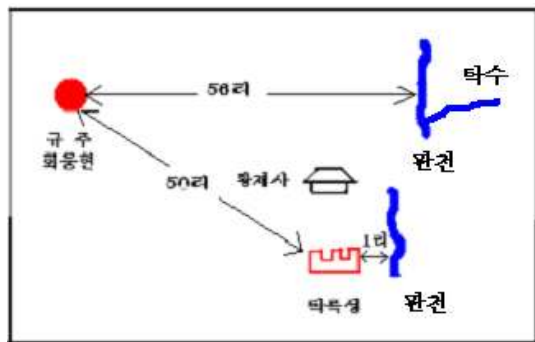
따라서 탁록은 산 이름 또는 현 이름으로서 탁군 또는 상곡 탁록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사기』에 따르면 현원은 판천(阪泉)의 벌(野)에서 염제(炎帝)와 전쟁을 하였다. 또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주해에 따르면 판천의 위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집해(集解)에 따르면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판천은 지명이라고 했으며, 황보밀(皇甫謐)이 말하기를 판천은 상곡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정의(正義)⁵⁾에 따르면 『괄지지(括地志)』에 써있기를 판천(阪泉)은 지금 황제천(黃帝泉)이라고 부르며, 규주(媯州) 회용현(懷戎縣) 동쪽 56리 거리에 있다. 또 5리를 흘러가면 탁록 동북쪽의 탁수(涿水)와 합류한다. 또 탁록고성(涿鹿故城)이 규주 동남쪽 50리 거리에 있는데 본래 황제의 치소였다.

또한, 『진태강지리지(晉太康地理志)』에 써있기를 탁록성(涿鹿城) 동쪽 1리 거리에 판천이 있으며 그 위에 황제사(黃帝祠)가 있다. 정의(正義)의 저자 장수절(張守節)이 살피건데 판천의 벌은 평야 지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회용현과 탁록현 지명 배치도

따라서 판천은 지명 또는 강 이름으로서 상곡에 있는데, 판천은 당(唐) 대의 규주 회용현 동쪽 56리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판천이 탁수와 합류했으며 그 합류 지점은 탁록 동북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주 회용현 동남쪽 50리 거리에 탁록고성이 있는데 탁록성에서 동쪽 1리 거리에 판천이 있으며 탁록성 위쪽에 황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의(正義)는 당(唐) 대의 주해이므로 그 당시 56리는 당척 1리=540m⁶⁾와 굴곡지수(x)⁷⁾=1을 적용하면 직선거리로서 56리×540m/리=약 30.2km를 산출할 수 있으며 4백만분의 1지도에서 약 0.8cm가 된다.

4) (索隱)은 당(唐) 대의 사마정(司馬貞)이 주해한 것임.

5) 정의(正義)는 당(唐) 대의 장수절(張守節)이 주해한 것임.

6)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46쪽.
시대 별로 1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나 당척 1리=약 540m이며 한척 1리=약 420m임.

7) 실제이동거리÷직선거리=굴곡지수(屈曲指數)

또 굴곡지수(x)=1.725⁸⁾를 적용하면 56리×420m/리÷1.725=약 17.5km이며 4백만분의 1지도에서 약 0.4cm가 된다. 즉, 굴곡지수는 지역마다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신당서』 지리지에 근거하여 서안, 낙양, 요양 간에서 산출한 굴곡지수(x)=1.725를 기준으로 삼아 거리의 원근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한 56리 또는 50리가 직선거리인지 실제 이동거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기 『사기』와 부기되어 있는 주해들을 종합하면 탁록과 관천은 모두 상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관련된 지명들 간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면 [그림 1]과 같이 지명 배치도를 그려 볼 수 있다. 다만,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 등 8개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 방향은 ±22.5도의 각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한서』와 『후한서』

『한서』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⁹⁾에 따르면 상곡군(上谷郡)은 유주에 속했는데 15개 현을 다스렸으며 그 중에 탁록현(涿鹿縣)이 있었다. 또 부기되어 있는 주해에 따르면 응소(應劭)가 말하기를 황제와 치우가 탁록(涿鹿)의 벌판(野)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왕망(王莽) 때 탁록을 포륙(拊陸)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탁록과 『한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탁록은 같은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또 『한서』 지리지에서 탁록의 벌판은 상곡군 탁록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漢) 대의 상곡군을 찾으면 치우와 현원이 전쟁을 한 탁록의 벌판이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상곡군은 진(秦) 대에 설치했는데 유주(幽州)에 속했다. 즉, 탁록의 벌판을 찾으려면 유주 상곡군 탁록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후한서』 군국지 제5¹⁰⁾에 따르면 상곡군에 8개 성(城)이 속했는데 그

8)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46쪽.
『신당서』 지리지에 근거하여 안동도호부(요동성)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서안과 낙양으로부터 각각 요양까지 굴곡지수(x)=1.725를 산출하여 적용.

9) 『한서(漢書)』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上谷郡, 秦置. 莽曰朔調. 屬幽州. 戶三萬六千八, 口十一萬七千七百六十二. 縣十五: 沮陽, 莽曰沮陰. 孟康曰:「音俎.」 泉上, 莽曰塞泉. 潘, 莽曰樹武. 師古曰:「音普半反.」 軍都, 溫餘水東至路, 南入沽. 居庸, 有關. 督, 孟康曰, 音句無. 師古曰:「雖音工豆反, 督音莫豆反.」 夷輿, 莽曰朔調亭. 寧, 西部都尉治. 莽曰博康. 昌平, 莽曰長昌. 廣寧, 莽曰廣康. 涿鹿, 莽曰拊陸. 應劭曰:「黃帝與蚩尤戰于涿鹿之野.」 且居, (樂陽)[陽樂]水出東, (東)[南]入(海)[沽]. 莽曰久居. 茹, 莽曰穀武. 女祁, 東部都尉治. 莽曰祁. 下落, 莽曰下忠.

10)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 제5:

중에 탁록이 있었다. 또 『후한서』 군국지에 주해가 붙어 있는데 『제왕세기(帝王世紀)』에 따르면 탁록은 황제(黃帝)의 수도이며 치우성(蚩尤城), 판천의 벌판, 황제사(黃帝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본(世本)』에 따르면 탁록이 고성(鼓城) 또는 팽성(彭城)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장안(張晏)이 말하기를 탁록은 상곡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예오제위(禮五帝位)』에는 황제와 적제(赤帝)가 판천의 벌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판천은) 탁록에 있지 않으며 (그 곳은) 치우를 벌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전한(前漢)대에서 후한(後漢)대로 넘어오면서 본래 상곡군에 15개 현(縣)이 있었는데 8개 성(城)으로 줄어들었으나 탁록현은 그대로 상곡군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한서』 군국지에 상곡군은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3,200리 거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거리표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삼십시킨 위사라고 볼 수 있다.¹¹⁾

왜냐하면 상기 『후한서』 군국지에서 낙양으로부터 각 군(郡)들까지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군은 유주에 속해 있었으나 유주의 범위가 낙양으로부터 3,200리나 멀리까지 해당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구당서』 권제39 지리지 제2(영주)¹²⁾에 따르면 어양군이 유주의 경계지역(낙양에서 동북 2,000리)인데 유주에 속했던 상곡이 그 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진서』 지리지¹³⁾에 따르면 진(秦)나라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을

秦置。陽東北三千二百里。八城，戶萬三百五十二，口五萬一千二百四。

沮陽 潘 永元十一年復。甯 廣甯 居庸 雒陽 涿鹿 帝王世紀曰：「黃帝所都，有蚩尤城·阪泉地·黃帝祠。」世本云在(鼓)[彭]城南，張晏曰在上谷。于瓚案禮 五帝位云黃帝與赤帝戰于阪泉之野，不在涿鹿，是伐蚩尤之地。下落

11)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53~54쪽.

12) 『구당서(舊唐書)』 권제39 지리지 제2 :

營州上都督府。隋柳城郡。武德元年(618년), 改爲營州總管府, 領遼·燕二州, 領柳城一縣。七年(624년), 改爲都督府, 管營·遼二州。貞觀二年(628년), 又督昌州。三年(629년), 又督師·崇二州。六年(632년), 又督順州。十年(636년), 又督慎州。今督七州。萬歲通天二年(697년), 爲契丹李萬榮所陷。神龍元年(705년), 移府於幽州界置, 仍領漁陽·玉田二縣。開元四年(716년), 復移還柳城。八年(720년), 又往就漁陽。十一年(723년), 又還柳城舊治。天寶元年(742년), 改爲柳城郡。乾元元年(758년), 復爲營州。舊領縣一, 戶一千三十一, 口四千七百三十二。天寶(742~755년), 戶九百九十七, 口三千七百八十九。在京師東北三千五百八十九里, 至東都二千九百一十里。柳城。漢縣, 屬遼西郡。室韋·靺鞨諸部, 並在東北。遠者六千里, 近者二千里。西北與奚接界, 北與契丹接界。

13)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幽州。案禹貢 冀州之域, 舜置十二牧, 則其一也。周禮：「東北曰幽州。」春秋元命包云：「箕星散爲幽州, 分爲燕國。」言北方太陰, 故以幽冥爲號。武王定殷, 封召公於燕, 其後與六國俱稱王。及秦滅燕, 以爲漁陽·上谷·右北平·遼西·遼東五郡。漢高祖分上谷置涿郡。武帝置十三州, 幽州依舊名不改。其後開東邊, 置

멸한 후 어양·상곡·우북평·요서·요동 등 5개 군(郡)을 설치하였는데, 『한서』(전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어양(漁陽), 상곡(上谷),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遼東), 탁군(涿郡), 광양(廣陽), 대군(代郡), 현도(玄菟), 낙랑(樂浪) 등 10개 군이 모두 한(漢) 대의 유주에 속했으므로 유주는 전국시대 연(燕)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한서』(전한서)와 『후한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탁록과 『한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탁록은 같은 지명으로서 탁록은 한(漢) 대의 유주 상곡군 탁록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진서』, 『대청광여도』 등

『진서』 권제14 지리지 상¹⁴⁾에 따르면 광녕군(廣寧郡)은 옛 상곡군에 속하였는데 진(晉) 태강(太康, 280~288년) 중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하락(下洛), 번(潘), 탁록(涿鹿) 등 3개 현을 다스렸다. 즉, 그 중에 탁록이 속하고 있다. 한편, 『대청광여도』 상에 탁록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북경인 순천부 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또 ‘황제가 치우를 이긴 곳(黃帝破蚩尤)’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또한, 『중국고대지명대사전(中國古代地名大詞典)』¹⁵⁾에 따르면 상곡군(上谷郡)은 역주(易州)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 2] 『대청광여도』 상에 역주(易州)는 탁주(涿州, 한 대의 탁군, 요 대의 탁주)와 유주(幽州, 수 대의 탁군, 당 대의 유주, 현재의 북경)의 서남쪽 인근지역에 표기되어 있다.

즉,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상곡(上谷)은 낙양(洛陽)에서 동북 3,200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탁군(涿郡)은 낙양(洛陽)에서 동북 1,800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대청광여도』 상에서 상곡은 낙양의 북쪽에 표기되어 있다. 만약 상곡을 『후한서』 군국지의 거리수치(동북 3,200리)대로 『대청광여도』에 표기한다면 낙양에서 동북 2,000리 거리에 있었다는 어양보다 동북방향으로 훨씬 더 먼 곳에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樂浪等郡，亦皆屬焉。元鳳元年(B.C.80년)，改燕曰廣陽郡。幽州所部凡九郡，至晉不改。幽州統郡國七，縣三十四，戶五萬九千二十。惠帝(291~306년)之後，幽州沒於石勒。及穆帝 永和五年(349년)，慕容儁僭號於薊，是爲前燕。七年(351년)，儁移都於鄴。儁死，子暉爲苻堅所滅。堅敗，地復入慕容垂，是爲後燕。垂死，寶遷于和龍。

14)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廣寧郡 故屬上谷，太康(280~288년)中置郡，都尉居。統縣三，戶三千九百五十。下洛 潘 涿鹿

15) 『중국고대지명대사전(中國古代地名大 典)』, 중화박물(www.gg-art.com) :

战国时赵公子嘉自立为代王，军上谷，秦灭代，置上谷郡，旧保定，易州，宣化 及顺天，河间之一部，皆其境。汉郡治沮阳，在察哈尔怀来县南，后魏废。后魏置，北齐省，故治在今河北广灵县西。隋改易州置，唐复曰易州，又改为上谷郡，寻复为易州，即今河北易县治。



[그림 2] 『대청광여도』 일부 / 상곡, 탁록, 역주, 탁주, 유주 등

또 『중국고대지명대사전』에서는 상곡이 낙양(洛陽)에서 동북 1,800리에 있었다는 한(漢) 대의 탁군(涿郡, 요 대의 탁주) 옆 역주(易州)에 위치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후한서』가 원전(原典)이므로 『중국고대지명대사전』이나 『대청광여도』는 믿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II장 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후한서』 군국지에서 각 군의 낙양으로부터의 거리 수치는 잘못되었거나 의도적인 위사가 삽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¹⁶⁾

즉, 탁록을 찾기 위해서는 『대청광여도』나 『중국고대지명대사전』 등에 근거할 수 없으므로 각 사서에 편집되어 있는 지리지에 근거하여 한(漢) 대의 유주 상곡군 탁록현과 진(晉) 대의 유주 광녕군 탁록현을 찾을 수밖에 없다.

III. 탁록의 위치 비정

1. 유주의 위치

『한서』(전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탁록현은 상곡군에 속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서』(전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낙랑군·현도군·요서군·요동군·우북평군·어양군·상곡군·대군 등 8개 군(郡)이

16)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57 쪽.

모두 유주(幽州)에 속했었으며,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탁군(涿郡)과 광양군(廣陽郡)도 모두 유주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먼저 유주의 위치를 찾아봄으로써 치우와 헌원이 전쟁을 한 탁록의 별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서』 지리지¹⁷⁾에 따르면 유주(幽州)는 기주(冀州)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순(舜)이 12개 목(牧)을 설치했는데 그 중 하나다. 주례(周禮)에서 동북(東北)을 유주라고 불렀다.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이긴 후, 소공(召公)을 연(燕)에 봉했는데 연(燕)은 한(韓)·위(魏)·조(趙)·제(齊)·진(秦)·초(楚) 등 6개 국(國)과 더불어 왕(王)을 칭했다. 그 후, 진(秦)나라가 연(燕)을 멸한 후, 어양·상곡·우북평·요서·요동 등 5개 군을 두었다.

그리고 한(漢) 고조(高祖, 기원전 247년~기원전 195년)가 상곡(上谷)을 분리하여 탁군(涿郡)을 설치하였으며, 한(漢) 무제(武帝, 기원전 156년~기원전 87년)는 동변(東邊)을 열어 현도·낙랑 등의 군(郡)을 설치하고 모두 유주(幽州)에 속하게 했다. 또 원봉(元鳳) 원년(元年, 기원전 80년)에 연(燕)을 고쳐서 광양군(廣陽郡)이라고 함으로써 한(漢) 대에 유주(幽州)에는 총 9개 군(郡)이 있었다(『후한서』 군국지에는 대군을 포함하여 10개 군으로 기록되어 있음). 진(晉) 대에 이르러서도 유주를 고치지 않고 유주에서 군국(郡國) 7개, 현(縣) 34개를 다스렸다.

그런데 상기 군(郡)들이 모두 상호 인접해서 유주에 속했었는데 광양군이 있던 곳이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의 중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燕)을 고쳐서 광양군을 두었으며 광양군(廣陽郡)에 계(薊), 광양(廣陽), 창평(昌平), 군도(軍都), 안차(安次) 등 5개 현이 속해 있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¹⁸⁾에 따르면 연경(燕京)을 연계(燕薊)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 광양군(廣陽郡)에 속하는 계(薊)가 연경(燕京)임을 알 수 있으며 전국시대 연(燕)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17) 논문 주석 13 참조.

18)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37 잡지 제6 지리 4 :

按 通典 云 朱 以 漢 建昭二年自 北扶餘 東南行渡 普述水 至紇升骨城居焉號曰句麗以高爲氏古記云 朱蒙 自 扶餘 逃難至 卒本 則紇升骨城 卒本 似一處也 漢書志 云 遼東郡 距 洛陽 三千六百里屬縣有 無慮 則 周禮 北鎮 醫巫閭山 也 大遼 於其下置 醫州 玄菟郡 距 洛陽 東北四千里所屬三縣高句麗是其一焉則所謂朱蒙所都紇升骨城 卒本 者蓋 漢 玄菟郡 之界 大遼國 東京之西 漢志 所謂 玄菟 屬縣高句麗是歟昔 大遼 未亡時遼帝在 燕景 則吾人朝聘者過 東京 涉 遼水 一兩日行至 醫州 以向 燕薊 故知其然也

19)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88 쪽.

계(薊)는, 『수서』 지리지의 탁군(涿郡)²⁰⁾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예전에 연군(燕郡)이었는데 폐지하고 탁군을 설치하였다. 또 『구당서』 지리지의 유주(幽州)²¹⁾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유주에서 계현(薊縣)·양향현(良鄉縣)·로현(潞縣)·탁현(涿縣)·고안현(固安縣)·옹로현(雍奴縣)·안차현(安次縣)·평창현(昌平縣) 등 8개 현(縣)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계현(薊縣)이 포함되어 있다.

또 『요사(遼史)』 지리지 제4(남경)²²⁾에 따르면 요나라 남경(南京) 석진부(析津府)를 연경(燕京)이라고 불렀는데 남경(南京)에 석진현(析津縣), 완평현(宛平縣), 창평현(昌平縣), 양향현(良鄉縣), 로현(潞縣), 안차현(安次縣), 영청현(永清縣), 무청현(武清縣), 향하현(香河縣), 옥하현(玉河縣), 각음현(漵陰縣) 등 11개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석진현은 진(晉) 대의 계현(薊縣)이었으며 완평현은 유도현(幽都縣)이었다.

또 상기 11개 현 중에서 남경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이 기록되어 있는 9개 현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도를 그리면 [그림 3]의 원편 그림과 같다. 또한, 상기 『요사』 지리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송(宋) 왕증(王曾)의 상거란사(上契丹事)²³⁾에 근거하여 웅주(雄州) 백구역(白溝驛)에서 하(河)를 건너 유주(幽州) 연경(燕京)에 도달하는 경로(230리)를 따라 각 지명의 배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3]의 오른편 그림과 같다.

동 그림에서 역, 고안, 내수, 용성 등의 위치는 상기 『요사』 지리지에서 역주(易州)²⁴⁾의 기록을 덧붙여 표기한 것이다.²⁵⁾

20) 『수서(隋書)』 지리지 권제30 :

薊 舊置燕郡, 開皇初(581년)廢, 大業初(605년)置涿郡.

21) 『구당서(舊唐書)』 권제39 지리지 제2 유주(幽州) :

改爲幽州總管府, 管幽·易·平·檀·燕·北燕·營·遼等八州. 幽州領薊·良鄉·潞·涿·固安·雍奴·安次·昌平等八縣. 開元十八年(730년), 割漁陽·玉田·三河置薊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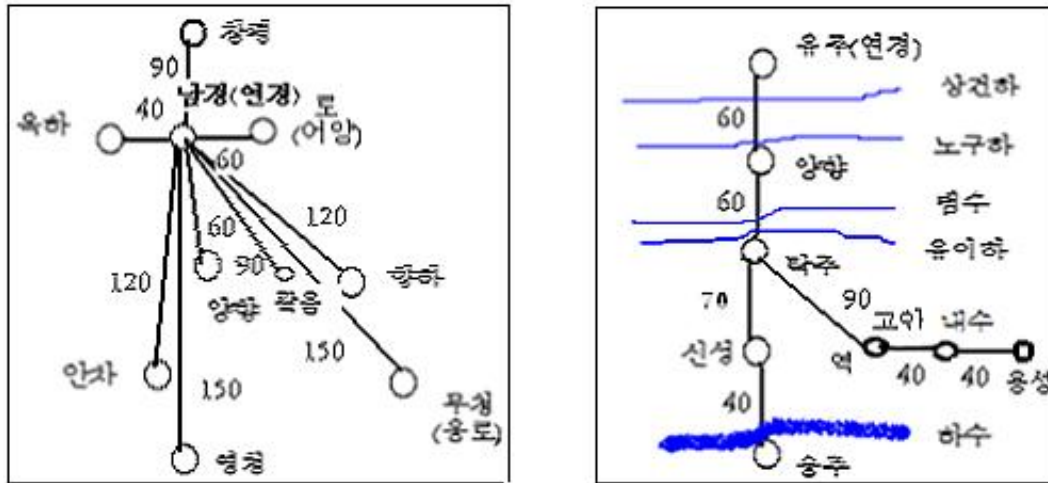
22) 『요사(遼史)』 권40 지리지 제4(남경) :

南京析津府, 本古冀州之地. 高陽氏謂之幽陵, 陶唐曰幽都, 有虞析 幽州. 商並幽於冀. 周分並為幽. 『職方』, 東北幽州, 山鎮醫巫閭, 澤藪滹養, 川河, 洙, 浸淄, 時. 其利魚, 鹽, 其畜馬, 牛, 豕, 其谷黍, 稷, 稻. 武王封太保奭於燕. 秦以其地為漁陽, 上谷, 右北平, 遼西, 遼東五郡. 漢為燕國, 歷封臧荼, 盧綰, 劉建, 劉澤, 劉旦, 嘗置涿郡廣陽國. 後漢為廣平國廣陽郡, 或合於上谷, 復置幽州. 後周置燕及範陽郡, 隋為幽州總管. 唐置大都督府, 改範陽節度使. 安祿山, 史思明, 李懷山, 朱滔, 劉怱, 劉濟, 相繼割據. 劉總歸唐. 至張仲武, 張允仲, 以正得民. 劉仁恭父子僭爭, 遂入五代. 自唐而晉, 高祖以遼有援立之勞, 割幽州等十六州以獻. 太宗升為南京, 又曰燕京. 其外, 有居庸, 松亭, 榆林之關. 古北之口, 桑乾河, 高粱河, 石子河, 大安山, 燕山, 中有瑤嶼. 府曰幽都, 軍號盧龍, 開泰元年落軍額, 統州六, 縣十一

23) 『요사(遼史)』 권40 지리지 제4(남경) :

宋王曾 『上契丹事』 曰 : 「自雄州白溝驛渡河, 四十裏至新城縣, 古督亢亭之地. 又七十裏至涿州. 北渡範水, 劉李河, 六十裏至良鄉縣. 渡盧溝河, 六十裏至幽州, 號燕京. 子城就羅郭西南為之. 正南曰啟夏門, 內有元和殿, 東門曰宣和. 城中坊閭皆有樓. 有閔忠寺, 本唐太宗為征遼陣亡將士所造; 又有開泰寺, 魏王耶律漢寧造. 皆遣朝使遊觀. 南門外有於越王廨, 為宴集之所. 門外永平館, 舊名碣石館, 請和後易之. 南即桑乾河.

24) 『요사(遼史)』 권40 지리지 제4(남경) :



[그림 3] 남경(연경) 주변 지명 배치도(근거: 『요사』 지리지 제4)

그런데 상기 두 그림간의 공통된 지명(地名)을 찾아보면 양향(良鄉)이 있다. 유주(幽州)와 남경(南京)이 양향으로부터 방향(북쪽)과 거리(60리)가 같으므로 유주와 남경은 같은 지역이며 상기 두 그림은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 두 그림이 서로 인근 지역의 지명들을 상호 보충해 주고 있다.

[그림 3]의 왼편 그림에서 로(潞)는 『수서』 지리지 권제30의 탁군(涿郡)²⁶⁾에 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수(隋)가 605년에 유주총관부(幽州總管府)를 폐지하고 9개 현을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서 로(潞)는 옛 어양군(漁陽郡)이었으며 581년에 군을 폐지하였다. 또 로(潞)는 『한서』 지리지의 어양군, 『후한서』 군국지의 어양군, 『진서』 지리지의 연국(燕國), 『구당서』 지리지의 유주에 속했던 현임을 알 수 있다.

，高陽軍，上，刺史。漢 易，故安二縣地。隋置易州，隋末為上谷郡。唐武德四年復易州。天寶元年(742年)仍上谷郡。乾元元年又改易州。五代隸定州節度使。會同九年(946年)，孫方簡以其地來附。應歷九年，為周世宗所取，後屬宋。統和七年，攻克之，升高陽軍。有易水，涑水，狼山，太寧山，白馬山。統縣三：易縣。本漢縣，故城在今縣東南六十裏。齊天保七年省。隋開皇十六年(596年)，於故安城西北隅置縣，即今縣治也。戶二萬五千。涑水縣。本漢道縣，今縣北一裏故道城是也。元魏移於故城南，即今縣置。周大象二年省。隋開皇十八年改涑水縣。在州東四十裏。有涑水。戶二萬七千。容城縣。本漢縣，先屬涿郡，故城在雄州西南。唐武德五年屬北義州。貞觀元年還本屬。聖歷二年改全忠縣。天寶元年復名容城縣。在州東八十裏。戶民皆居巨馬河南，僑治涑州新城縣。戶五千。

25)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대학교원대학교, 2012, 167 쪽.

26) 『수서(隋書)』 지리지 권제30 :

涿郡：舊置幽州，後齊(550~577年)置東北道行臺。後周平齊，改置總管府。大業初(605年)府廢。統縣九，戶八萬四千五十九。薊 舊置燕郡，開皇初(581年)廢，大業初(605年)置涿郡。良鄉 安次 涿 舊置范陽郡，開皇初(581年)郡廢。固安 舊曰故安，開皇六年(586年)改焉。雍奴 昌平 舊置東燕州及平昌郡。後周州郡並廢，後又置平昌郡。開皇初(581年)郡廢，又省萬年縣入焉。有關官。有長城。懷戎後齊(550~577年)置北燕州，領長寧·永豐二郡。後周去「北」字。開皇初(581年)郡廢，大業初(605年)州廢。有喬山，歷陽山，大·小翻山。有灤水·沁水·涑水·阪泉水。潞 舊置漁陽郡，開皇初(581年)廢。

또 양향(良鄉)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탁군(涿郡)²⁷⁾에 속하는 현이었으며, 창평(昌平)/군도(軍都)와 안차(安次)는 광양군(廣陽郡)²⁸⁾에 속하는 현들이었고 웅노(雍奴)는 어양군(漁陽郡)²⁹⁾에 속하는 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에서 탁(涿), 고안(故安), 양향(良鄉), 신성(新城) 등이 모두 『후한서』 군국지의 탁군(涿郡)에 속하는 현들이며, 유주(幽州)·역주(易州) 등의 지명은 『구당서』 지리지에 따르면 모두 유주대도독부(幽州大都督府)³⁰⁾에 속하는 주들이다.

따라서 상기 [그림 3]의 두 그림에서 남경(南京)을 중심으로 각 현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면, 왼쪽 그림의 남경은 오른쪽 그림의 유주(幽州)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요(遼) 대의 남경은 연경(燕京)이라고 불렀는데 당(唐) 대에는 유주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서』 지리지 권제30 탁군(涿郡)의 기록에 따르면 계(薊)는 연군(燕郡)이었는데 폐지하고 탁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수(隋) 대에 계(薊)는 탁군의 치소였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런데 상기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에서 웅주(雄州) 백구역(白溝驛)에서 하(河)를 건너 연경(燕京)이라고 부르는 유주에 도달하는데 북쪽으로 230리였다. 230리는 당척 1리=540m와 굴곡지수(x)=1을 적용하면 직선거리로서

27)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涿郡 高帝置. 陽東北千八百里. 七城, 戶十萬二千二百一十八, 口六十三萬三千七百五十四. 涿 涿侯國. 史記, 漢 武帝至鳴澤, 服虔曰在縣北界. 故安 易水出, 雹水出. 案本紀, 永元十五年(103년)復置縣鐵官. 范陽侯國. 良鄉 北新城有汾水門. 史記曰, 趙與燕 汾門. 方城故屬廣陽. 有臨鄉. 故縣, 後省. 惠文王與燕 臨樂. 有督[亢]亭. 劉向 別錄曰: 「督亢, 膏腴之地.」史記, 荊軻奉督亢圖入秦.

28)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廣陽郡 高帝置, 爲燕國, 昭帝更名為郡. 世祖省并上谷, 永(平)[元]八年(96년)復. 五城, 戶四萬四千五百五十, 口二十八萬六百. 薊本燕國. 刺史治. 漢官曰: 「雒陽東北二千里.」廣陽 昌平故屬上谷. 軍都故屬上谷. 安次故屬勃海

29)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漁陽郡 秦置. 雒陽東北二千里. 九城, 戶六萬八千四百五十六, 口四十三萬五千七百四十. 漁陽有鐵. 狐奴 潞 雍奴 泉州有鐵. 平谷 安樂 僞奚 獷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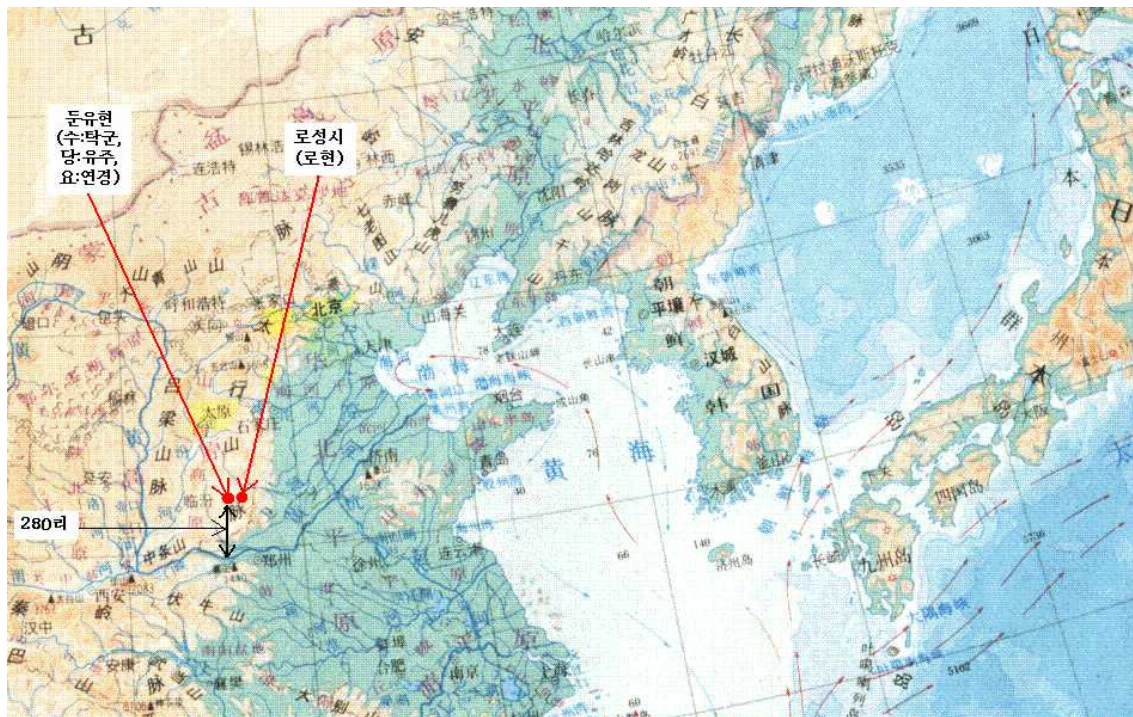
30) 『구당서(舊唐書)』 권제39 지리지 제2 :

幽州大都督府. 隋爲涿郡. 武德元年(618년), 改爲幽州總管府, 管幽·易·平·檀·燕·北燕·營·遼等八州. 幽州領薊·良鄉·潞·涿·固安·雍奴·安次·昌平等八縣. 二年(619년), 又分潞縣置玄州, 領一縣, 隸總管. 四年(621년), 竇建德平, 固安縣屬北義州. 六年(623년), 改總管爲大總管, 管三十九州. 七年(624년), 改爲大都督府, 又改涿縣爲范陽. 九年(626년), 改大都督爲都督, 幽·易·景·瀛·東鹽·滄·蒲·蠡·北義·燕·營·遼·平·檀·玄·北燕等十七州. 貞觀元年(627년), 廢玄州, 以漁陽·潞二縣來屬. 又廢北義州. 以固安來屬. 八年(634년), 又置歸義縣. 都督幽·易·燕·北燕·平·檀六州. 乾封三年(668년), 置無終縣. 如意元年, 分置武隆縣. 景龍三年(709년), 分置三河縣. 開元十三年(725년), 昇爲大都督府. 十八年(730년), 割漁陽·玉田·三河置薊州. 天寶元年(742년), 改范陽郡, 屬范陽·上谷·嬀川·密雲·歸德·漁陽·順義·歸化八郡. 乾元元年(758년), 復爲幽州. 舊領縣十: 薊·潞·雍奴·漁陽·良鄉·固安·昌平·范陽·歸義也. 戶二萬一千六百九十八, 口十萬二千七十九. 天寶(742년), 縣十, 戶六萬七千二百四十二, 口十七萬一千三百一十二. 今領縣九. 在京師東北二千五百二十里, 至東都一千六百里.

31)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121 쪽.

230리×540m/리=약 124km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백만 분의 1지도에서 3.1cm이다.

상기한 하(河)를 황하(黃河) 인근 지역에 있는 강으로 가정해 보면 4백만분의 1 지도에서 황하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3.8cm 거리(약 280리)에 [그림 4]와 같이 현재의 둔유(屯留)와 로성(潞城)이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둔유현과 로성시를 [그림 3]의 남경과 로에 각각 대입시켜 보면 둔유현을 요(遼) 대의 남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³²⁾



[그림 4] 아시아 지도 일부 / 둔유현과 로성시

한편, 4백만분의 1 지도에서 현재의 로성(潞城)으로부터 둔유(屯留)까지 0.8cm이므로 축척 4백만을 곱하면 직선거리가 32km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사』 지리지 제4(남경)에 따르면 로(潞)로부터 남경인 연경(燕京)까지 60리라고 하므로 직선거리 km에 대한 리(里) 환산치로서 $32\text{km} \div 60\text{리} = 540\text{m/리}$ 를 구할 수 있다. 즉, 요(遼) 대에도 당척 1리=540m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로성과 둔유 사이에 굴곡지수(x)=1로서 로(潞)로부터 남경까지 60리는 직선거리로 볼 수 있다.

또 남경에서 남쪽으로 양향현(良鄉縣)까지 60리라고 하는데 현재의 둔유(屯留)에서 남쪽으로 장치(長治)까지 직선거리로 약 32km(4백만분의 1지도에서

32)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16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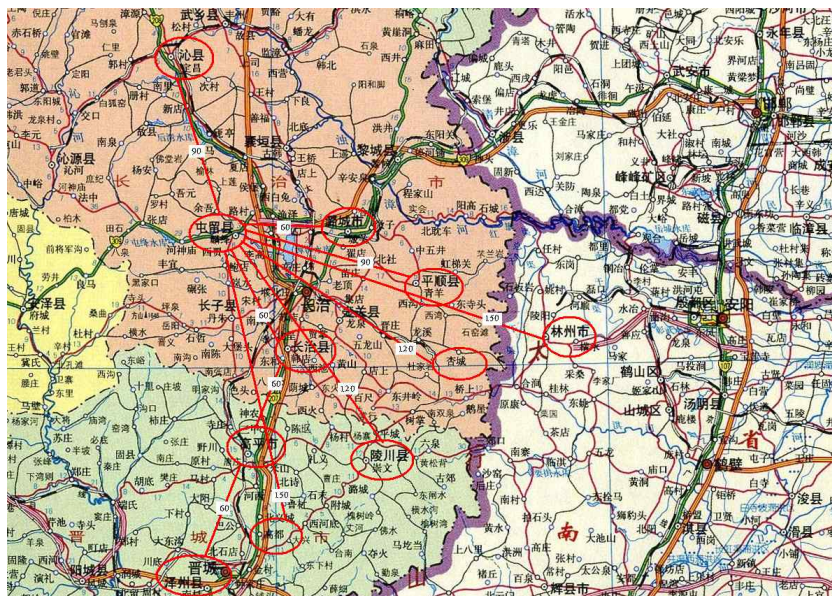
0.8cm)이므로 양향현은 장치(長治) 인근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양향현(良鄉縣)에서 남쪽으로 탁주(涿州)까지 60리라고 하는데 장치(長治)에서 남쪽으로 고평(高平)까지 직선거리로 약 32km(0.8cm)이므로 탁주는 고평시 인근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상기 [그림 3]의 왼편 그림을 보면 안차현(安次縣)은 남경에서 남쪽으로 120리이며 탁주(涿州)와 같은 방향(남쪽)으로서 같은 거리(120리)인데 직선거리로서 약 64km(1.6c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릉천현(陵川縣)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한, 신성현(新城縣)은 탁주에서 70리라고 하는데 고평(高平)에서 남쪽으로 약 28km (0.7cm) 지점에 진성(晉城)시가 있으며 약 32km(0.8cm) 지점에 탁주현(澤州縣)이 있으므로 그 아래 대기(大冀) 인근지역을 신성현(新城縣)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창평현(昌平縣)은 본래 한(漢) 대의 군도현(軍都縣)으로서 현재의 둔유(屯留)에서 북쪽으로 90리라고 하므로 직선거리로 48km(1.2c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심현(沁縣) 주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에서 하(河)수를 현재의 심하(沁河)로 비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제원(濟源)시 인근지역을 웅주(熊州)로 비정할 수 있다.



[그림 5] 중국 산서성 일부/ 계, 양향, 로, 탁, 웅로, 안차 등

상기 [그림 3]의 두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지명들은 모두 『요사』 지리지에 근거한 지명들이므로 요 대의 지명들이다. 또 전한-후한 대의 많은 지명들이 그대로 요 대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지명들을 비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현재의 시 또는 현 등

의 행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古代)의 도읍이 계속 발전하여 현재의 도시를 형성했을 수도 있지만 주변 인근지역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 비정한 현재의 지명들은 지명의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향과 거리에 따라 현재의 대표성 있는 지명을 활용하는 것뿐이며 대략적인 지역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지명들은 [그림 5]와 [그림 6]의 현대 지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산서성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중국 산서성과 하남성 일부 / 곽평, 진성, 임주, 룡천 등

또한, 이들 지명들은 당(唐) 대에는 유주에 속해 있었으며 요(遼) 대에는 남경(연경)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전국시대 연(燕)의 강역으로서 동북방향 유주(幽州)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의 로와 남경(연경)은 현재의 로성시와 둔유현으로서 『대청광여도』에 [그림 7]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7] 『대청광여도』 일부 / 둔유(屯留)와 로(潞)

2. 상곡군, 탁군, 광양군, 광녕군 등의 위치

① 상곡군에서 탁군을 분리

『진서』 지리지 권제14(지리 상)33)에 따르면 한(漢) 고조(高祖)가 상곡(上谷)을 분리하여 탁군(涿郡)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탁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곡군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연지(燕地)34)에 따르면 연(燕)의 남쪽에서 탁군에 속하는 역(易), 용성(容城), 범양(范陽), 북신성(北新城), 고안(故安), 탁현(涿縣), 양향(良鄉), 신창(新昌) 등과 발해(勃海)의 안차(安次)를 얻었다고 한다. 즉, 전한 대의 탁군에 해당하는 현들의 명칭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탁록과 명칭이 유사한 탁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탁현이 탁록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탁(涿)’의 지명에 사

33) 논문 주석 13 참조.

34) 『한서(漢書)』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燕地，尾箕分也。武王定殷，封召公於燕，其後三十六世與六國俱稱王。東有漁陽·右北平·遼西·遼東，西有上谷·代郡·雁門，南得涿郡之易·容城·范陽·北新城·故安·涿縣·良鄉·新昌，及勃海之安次，皆燕分也。樂浪·玄菟，亦宜屬焉。

슴을 의미하는 ‘록(鹿)’자가 붙었으므로 인근 지역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편, 『한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상곡군(上谷郡)³⁵⁾과 『후한서』 군국지의 상곡군(上谷郡)³⁶⁾을 비교해 보면 본래 상곡군에 15개 현이 있었는데 저양(沮陽)/저음(沮陰), 반(潘)/수무(樹武), 거용(居庸), 구무(雒督), 영(甯)/녕(寧), 광녕(廣甯)/광녕(廣寧)/광건(廣康), 탁록(涿鹿)/포록(拊陸), 하락(下落)/하충(下忠) 등 8개 현은 동일하며, 천상(泉上)/새천(塞泉), 군도(軍都), 이여(夷輿)/삭조정(朔調亭), 저거(且居)/구거(久居), 여(茹)/곡무(穀武), 창평(昌平)/장창(長昌), 여기(女祁)/기(祁) 등 7개 현은 빠졌음을 알 수 있다(‘/’ 뒤의 지명은 본래 옛 명칭임). 즉, 탁록은 전한 대와 후한 대에 걸쳐 계속 상곡군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탁군과 광양군을 모두 고제(高帝)가 설치했는데 탁군(涿郡)³⁷⁾에는 탁(涿), 고안(故安), 범양(范陽), 양향(良鄉), 북신성(北新城), 방성(方城), 임낙(臨樂) 등 7개 현이 속했으며, 광양군(廣陽郡)³⁸⁾에는 계(薊), 광양(廣陽), 창평(昌平), 군도(軍都), 안차(安次) 등 5개 현이 속했다. 상기 『후한서』 군국지의 탁군에 소속된 현들과 『한서』(전한서) 지리지 제8하 연지(燕地)의 탁군에 속하는 현들을 비교해 보면 탁현(涿縣), 고안(故安), 범양(范陽), 양향(良鄉), 북신성(北新城) 등 5개 현은 동일하나, 역(易)·용성(容城)·신창(新昌) 등 3개 현은 빠졌으며 방성(方城)·임낙(臨樂) 등 2개 현은 추가되었다. 즉, 탁군에 속하는 지역이 전한 대와 후한 대에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탁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5) 『한서(漢書)』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上谷郡, 秦置. 莽曰朔調. 屬幽州. 戶三萬六千八, 口十一萬七千七百六十二. 縣十五 : 沮陽, 莽曰沮陰. 孟康曰 : 音沮. 泉上, 莽曰塞泉. 潘, 莽曰樹武. 師古曰 : 「音普半反.」 軍都, 溫餘水東至路, 南入沽. 居庸, 有關. 雒督, 孟康曰, 音句無. 師古曰 : 「雒音工豆反, 督音莫豆反.」 夷輿, 莽曰朔調亭. 寧, 西部都尉治. 莽曰博康. 昌平, 莽曰長昌. 廣寧, 莽曰廣康. 涿鹿, 莽曰拊陸. 應劭曰 : 「黃帝與蚩尤戰于涿鹿之野.」 且居, (樂陽)[陽樂]水出東, (東)[南]入(海)[沽]. 莽曰久居. 茹, 莽曰穀武. 女祁, 東部都尉治. 莽曰祁. 下落, 莽曰下忠.

36)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上谷郡 秦置. 雒陽東北三千二百里. 八城, 戶萬三百五十二, 口五萬一千二百四. 沮陽 潘 永元十一年(99년)復. 甯 廣甯 居庸 雒督 涿鹿 帝王世記曰 : 「黃帝所都, 有蚩尤城·阪泉地·黃帝祠.」 世本云在(鼓)[彭]城南, 張晏曰在上谷. 于瓚案禮 五帝位云黃帝與赤帝戰于阪泉之野, 不在涿鹿, 是伐蚩尤之地. 下落

37)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涿郡 高帝置. 雒陽東北千八百里. 七城, 戶十萬二千二百一十八, 口六十三萬三千七百五十四. 涿 迺侯國. 史記, 漢 武帝至鳴澤, 服虔曰在縣北界. 故安 易水出, 雹水出. 案本紀, 永元十五年(103년)復置縣鐵官. 范陽侯國. 良鄉 北新城有汾水門. 史記曰, 趙與燕 汾門. 方城故屬廣陽. 有臨鄉. 故縣, 後省. 惠文王與燕 臨樂. 有督[亢]亭. 劉向 別錄曰 : 「督亢, 膏腴之地.」 史記, 荊軻奉督亢圖入秦.

38)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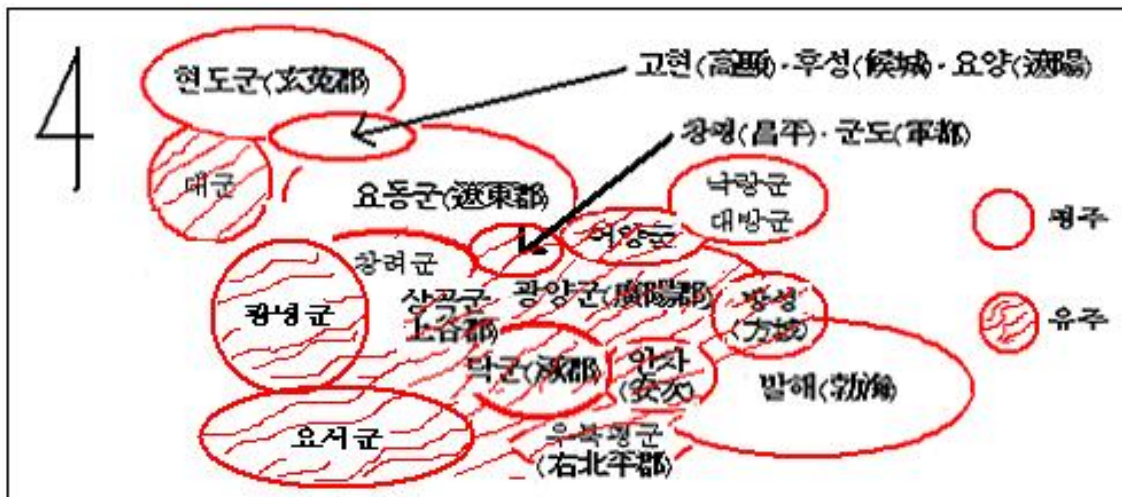
廣陽郡 高帝置, 爲燕國, 昭帝更名爲郡. 世祖省并上谷, 永(平)[元]八年(96년)復. 五城, 戶四萬四千五百五十, 口二十八萬六百. 薊本燕國. 刺史治. 漢官曰 : 「雒陽東北二千里.」 廣陽 昌平故屬上谷. 軍都故屬上谷. 安次故屬勃海

또 상기 『후한서』 군국지의 광양군에 소속된 현들과 『한서』 지리지 제8하의 상곡군에서 빠져나간 현들을 비교해 보면 창평(昌平)과 군도(軍都)가 상곡군에서 광양군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으나 탁록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탁록(涿鹿)은 전한 대와 후한 대에 걸쳐 계속 상곡군에 속해 있었으며 한(漢) 대의 탁군 또는 광양군 지역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연(燕)을 고쳐 광양군과 광녕군을 설치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원봉(元鳳) 원년(元年, 기원전 80년)에 연(燕)을 고쳐서 광양군(廣陽郡)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한서』 군국지에는 탁군 뿐만 아니라 광양군도 한(漢) 고제(高帝)가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광양군에는 계(薊), 광양(廣陽), 창평(昌平), 군도(軍都), 안차(安次) 등 5개 현이 속했었는데 계(薊)는 본래 연국(燕國)이었으며, 창평(昌平)과 군도(軍都)는 예전에 상곡(上谷)에 속했었고, 안차(安次)는 예전에 발해(勃海)에 속했었다. 즉, 광양군(廣陽郡)과 상곡군(上谷郡)은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며, 광양군(廣陽郡)과 발해(勃海)가 또 인접해 있어야 한다.



[그림 8] 진(晉) 대의 유주와 평주에 속하는 각 군의 가상 배치도

또 탁군(涿郡)에 속한 방성(方城)이 예전에는 광양(廣陽)에 소속된 적이 있었다고 하니 탁군(涿郡)과 광양군(廣陽郡)이 또한 인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곡군과 광양군, 광양군과 발해, 탁군과 광양군 간의 상호 위치 관계를 인접하고 있는 지명(창평, 군도, 안차, 방성 등)을 매개로하여 가상적으로 지명 배치도를 그리면 [그림 8]과 같다.³⁹⁾

그러나 [그림 8]에서 각 군(郡)을 표기한 원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다. 또 각 군(郡)이 상호 인접해 있더라도 서로 어느 방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다만, 『한서』 지리지·『후한서』 군국지·『진서』 지리지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각 군(郡) 간의 상호 인접여부를 추정하게 할 수 있는 현(縣)들의 명칭(고현, 후성, 요양, 창평, 군도, 안차, 방성 등)을 매개로 해서 단순히 군(郡) 간의 인접여부를 고려한 것이며 상호 간의 방향을 암시하게 하는 기록들을 최대한 고려해 본 것일 뿐이다(본 논문 주석 34 참조).

한편, 후한(後漢) 대에 유주에 속하는 10개 군과 진(晉) 대에 유주에 속하는 7개 군국을 비교해 보면 상곡, 대군, 요서 등 3개 군(郡)은 변동이 없고, 어양, 탁군, 광양, 우북평, 요동, 현도, 낙랑 등은 빠졌으며, 범양국(范陽國), 연국(燕國), 북평군(北平郡), 광녕군(廣寧郡) 등이 새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즉, 진(晉) 대에 유주(幽州)에서 다스린 7개 군국(郡國)은 범양국, 연국, 북평군, 상곡군, 광녕군, 대군, 요서군 등임을 알 수 있다.

상기 7개 군국(郡國) 중에서 범양국(范陽國)은 탁군(涿郡)의 명칭이 바뀌었으며,⁴⁰⁾ 연국(燕國)은 광양군(廣陽郡)의 명칭이 바뀌었고,⁴¹⁾ 광녕군(廣寧郡)은 예전에 상곡(上谷)에 속했는데 태강(太康, 280~288년) 중에 군으로 설치되었으며,⁴²⁾ 요동, 현도, 낙랑 등 3개 군(郡)은 진(晉) 대에 분리되어 평주(平州)에 소속되었다.

또 평주에는 창려군(昌黎郡)·요동국(遼東國)·낙랑군(樂浪郡)·현도군(玄菟郡)·대방군(帶方郡) 등 5개 군국(郡國)이 속했었다. 즉, 후한(後漢) 대에 유주에 속하는 10개 군(郡)중에서 어양(漁陽)의 명칭만 빠졌으며 우북평(右北平)이 북평군(北平郡)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창려군(昌黎郡)⁴³⁾은 위(魏) 대에 설치했으며 대방군(帶方郡)⁴⁴⁾은 후한(後漢) 말에 공손도(公孫度)가 설치하였다. 따라서 진

39)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92 쪽.

40)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范陽國 漢置涿郡. 魏文更名范陽郡. 武帝置國, 封宣帝弟子綏爲王. 統縣八, 戶一萬一千. 涿 良鄉 方城 長鄉 遼 故安 范陽 容城 侯相.

41)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燕國 漢置, 孝昭改爲廣陽郡. 統縣十, 戶二萬九千. 薊 安次 侯相. 昌平 軍都 有關. 廣陽 潞 安樂 國相. 蜀主劉禪封此縣公. 泉州 侯相. 雍奴 狐奴

42)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廣寧郡 故屬上谷, 太康中置郡, 都尉居. 統縣三, 戶三千九百五十. 下洛 潘 涿鹿

43)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昌黎郡 漢屬遼東屬國都尉, 魏置郡. 統縣二, 戶九百. 昌黎 賓徒

44)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帶方郡 公孫度置. 統縣七, 戶四千九百. 帶方 列口 南新 長岑 提奚 含資 海冥

대의 유주와 평주는 [그림 8]과 같이 구분지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후한 대에 어양(漁陽)에 속해 있던 9개 성(城) 중에서 고노(狐奴), 로(潞), 웅노(雍奴), 천주(泉州), 안락(安樂) 등 5개 성(城)은 연국(즉, 광양군)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어양군(漁陽郡)⁴⁵⁾에 어양(漁陽), 고노(狐奴), 로(潞), 웅노(雍奴), 천주(泉州), 평곡(平谷), 안락(安樂), 치해(倮奚), 광평(獐平) 등 9개 성(城)이 있었으며 광양군(廣陽郡)⁴⁶⁾에는 계(薊), 광양(廣陽), 창평(昌平), 군도(軍都), 안차(安次) 등 5개 현이 있었는데, 진(晉) 대의 연국(燕國, 광양군)에 기존에 속했던 5개 현과 어양군(漁陽郡)에 속했던 고노·로·웅노·천주·안락 등 5개 성(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후한(後漢) 대에 어양군과 광양군이 인접해 있었으며 진(晉) 대에 어양군이 광양군과 병합되어 연국(燕國, 광양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그러나 후한(後漢) 대에 어양(漁陽)에 속해 있던 어양(漁陽)/득어(得漁), 평곡(平谷), 광평(獐平)/평광(平獐), 치해(倮奚)/제해(庠奚)/돈덕(敦德) 등 4개 성(城)에 관해서는 별도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양군(漁陽郡)에서 연국(燕國)/광양군(廣陽郡)으로 옮겨간 고노·로·웅노·천주·안락 등 5개 성(城) 중에서 로(潞)와 웅노(雍奴)의 위치를 [그림 3]의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III장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로(潞)는 현재의 로성(潞城)시로, 웅노(雍奴)는 현재의 임주(林州)시로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로성(潞城)시와 임주(林州)시를 잇는 지역 일대를 후한(後漢) 대의 어양군 일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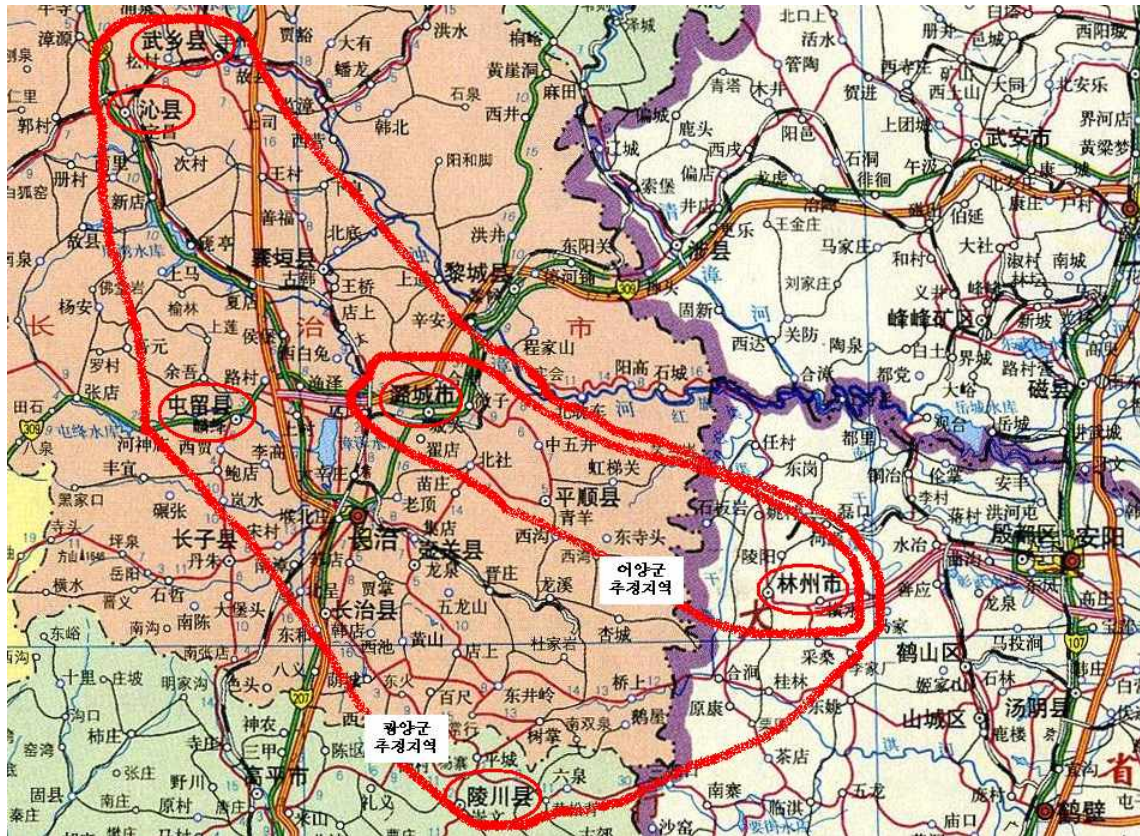
또한, [그림 5]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연국(燕國, 광양군)에 속하는 계(薊), 안차(安次), 창평(昌平), 군도(軍都), 로(潞), 웅노(雍奴) 등은 각각 현재의 둔유현·릉천현·심현·무향현·로성시·임주시 등으로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명을 잇는 지역 일대를 진(晉) 대의 연국(燕國, 광양군)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후한(後漢) 대의 어양군은 진(晉) 대에 광양군에 병합되었다. 즉,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양군이 광양군 지역 내에 포함된 것은 비록 해당 지명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앞서 [그림 5]에서 논한 각 지명들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올바르게 비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논문 주석 29 참조.

46) 본 논문 주석 28 참조.

47) 본 논문 주석 41 참조.



[그림 9] 후한 대의 어양군과 진 대의 연국(광양군) 추정 지역

또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탁군(涿郡)⁴⁸⁾에는 탁(涿), 고안(故安), 범양(范陽), 양향(良鄉), 북신성(北新城), 방성(方城), 임낙(臨樂) 등 7개 현이 있었는데 탁·고안·양향 등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III장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탁은 현재의 고평(高平)시로, 양향은 현재의 장치현(長治縣)으로, 고안은 현재의 고평(高平)시 동남쪽 90리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치현(長治縣), 고평(高平)시 그리고 고평(高平)시 동남쪽 90리에 해당하는 고안(故安) 지역 등을 잇는 지역 일대를 후한(漢) 대의 탁군(涿郡)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진서』 지리지의 범양국(范陽國)⁴⁹⁾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한(漢) 대의 탁군을 위(魏) 대에 범양군으로 고쳤다가 진(晉) 대에 범양국을 설치하였는데 탁(涿), 양향(良鄉), 방성(方城), 장향(長鄉), 주(遯), 고안(故安), 범양(范陽), 용성(容城) 등 8개 현을 두었다.

따라서 전한·후한 대의 탁군과 진대의 범양국(탁군)을 비교해 보면 전한 대의 역(易), 용성(容城), 범양(范陽), 북신성(北新城), 고안(故安), 탁현(涿縣),

48) 논문 주석 27 참조.

49) 본 논문 주석 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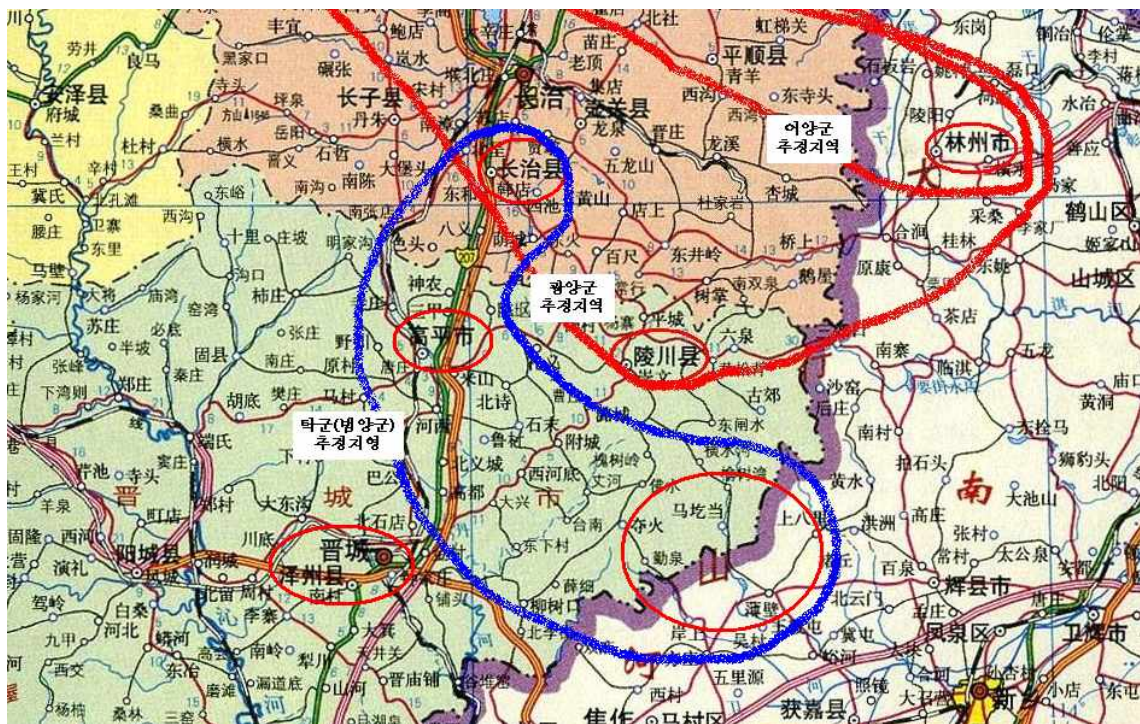
양향(良鄉), 신창(新昌) 등 7개 현에서 후한 대에 역·용성·신창 등 3개 현이 빠지고 방성·임낙 등 2개 현이 추가되었으며, 진 대에 복신성·임낙 등 2개 현이 빠지고 장향·주·용성 등 3개 현이 추가되었다.

상기 변동이 있는 현 중에서 역·용성 등은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에서 참조할 수 있다. 즉, 역·용성 등은 [그림 10]에서 고안의 오른쪽 인근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①)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탁군에 속하는 상기 지명 중에서 탁록을 발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탁록은 상곡군에서 분리된 탁군 또는 범양국(范陽國)이나 광양국에 속한 지역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광녕군(廣寧郡)은 옛 상곡군에 속하였는데 진(晉) 태강(太康, 280~288년) 중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하락(下洛), 반(潘), 탁록(涿鹿) 등 3개 현이 있었다.

즉, 탁록은 전한·후한 대에 걸쳐 상곡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진 대에는 상곡군을 분리하여 설치한 광녕군(廣寧郡)에 속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녕군의 위치를 찾아야 탁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중국 산서성 일부 / 후한(後漢) 대의 탁군(범양군) 추정 지역

3. 탁현, 회융현, 광녕현, 유성현, 탁록현 등

① 탁현과 회융현

후한(漢) 대의 탁군(涿郡) 지역이 수(隋) 대의 탁군 지역과 지리적으로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후한 대의 탁군에는 탁(涿)·고안(故安)·범양(范陽)·양향(良鄉)·북신성(北新城)·방성(方城)·임낙(臨樂) 등 7개 현이 속하고 있었으나, 『수서』 지리지 권제30 탁군⁵⁰⁾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수 대의 탁군에는 계(薊)·탁(涿)·고안(固安)·창평(昌平)·회용(懷戎)·로(潞)·양향(良鄉)·안차(安次)·옹노(雍奴) 등 모두 9개 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한 대의 탁군(涿郡)에 속하는 7개 현과 수 대의 탁군(涿郡)에 속하는 9개 현을 비교해 보면 탁·고안·양향 등 3개 현은 동일하나, 범양·북신성·방성·임낙 등 4개 현은 빠졌으며, 계·창평·회용·로·안차·옹노 등 6개 현이 추가되었다.

상기 『수서』 지리지에 따르면 수 대의 탁군에 속하는 9개 현 중에서 계현(薊縣)은 예전에 연군(燕郡)이었는데 581년에 폐지하고 605년에 탁군(涿郡)을 두었다. 즉, 수 대의 탁군 치소는 계현(薊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탁현(涿縣)은 예전 범양군(范陽郡)이었는데 581년에 군(郡)을 폐지하였다. 즉, 진 대의 범양군이 후한 대의 탁군이었으므로 후한 대 탁군의 치소는 탁현(涿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용현(懷戎縣)은 후제(後齊)가 북연주(北燕州)를 설치하고 장녕(長寧)·영풍(永豐) 등 2개 군(郡)을 통치했는데 후주(後周)가 북(北)자를 빼고 연주(燕州)로 고쳤다. 581년에 군(郡)을 폐지하고 605년에 주(州)를 폐지하였다. 교산(喬山), 역양산(歷陽山), 대·소핵산(大·小翻山) 등과 곽수(瀾水)·심수(沁水)·탁수(涿水)·판천수(阪泉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상기 수 대의 탁군 회용현에 곽수(瀾水)·심수(沁水)·탁수(涿水)·판천수(阪泉水)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천수(阪泉水)는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제가 염제와 전쟁을 한 판천(阪泉)의 벌(野)과 명칭이 같다.

또 『요사』 권40 지리지 제4(남경)의 탁주(涿州)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범양현은 한 대의 탁현인데 탁현에 탁수(涿水)가 있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용현은 탁수와 판천수가 있는 곳으로서 탁현(현재의 고평시로 비정)에 인접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당서』 권제39 지리지 제3 하북도(河北道)⁵¹⁾에 관한 기록에 따르

50) 논문 주석 26 참조.

51) 『신당서(新唐書)』 권제39 지(志) 제29 지리(地理) 제3:

河北道, 蓋古幽·冀二州之境, 漢 河內·魏·渤海·清河·平原·常山·上谷·涿·漁陽·右北平·遼西·眞定·中山·信都·河間·廣陽等郡國, 又參有東郡·河東·上黨·鉅鹿之地. 孟·懷·檀·衛及魏·博·相之南境爲媿訾分, 邢·洛·惠·貝·冀·深·趙·鎮·定及魏·博·相之北境爲大梁分, 滄·景·德爲玄分, 瀛·莫·幽·易·涿·平·嬀·檀·薊·營·安東爲析木津分. 爲州二十九, 都護府一, 縣百七十四. 其名山: 林慮·白鹿·封龍·井陘·碣石·常岳. 其大川: 漳·淇·呼陀. 厥賦: 絲·絹·綿. 厥貢: 羅·綾·紬·紗·鳳翽·草席.

면 하북도에 규주(媯州)가 있었는데 유(幽)·영(營)·탁(涿)·평(平)·단(檀)·계(薊) 등과 더불어 석목진분(析木津分) 방향에 있었으며, 『사기』의 주해(정의)에 따르면 규주(媯州)에 회융현(懷戎縣)이 있었다. 즉, 정의는 당(唐) 대의 장수절(張守節)이 주해한 것이므로 당 대의 규주 회융현이 탁현 인근 지역에 위치했었으며 수 대에는 탁군 회융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당 대의 회융현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탁현으로 비정한 현재의 고평(高平)시 서쪽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평시 동쪽과 북쪽 지역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 대의 광양군에 속했으며 남쪽은 북평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② 광녕현과 유성현

한편, III장 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진(晉) 대의 광녕군(廣寧郡)은 옛 상곡군에 속하였는데 하락(下洛)·반(潘)·탁록(涿鹿) 등 3개 현이 있었다. 또 ‘녕(寧)’자는 ‘녕(寧)’과 같은 글자이다.

그런데 『요사』 권40 지리지 제4(남경)의 영주(營州)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영주에서 광녕현(廣寧縣) 1개 현을 다스렸는데 광녕현은 한(漢) 대의 유성현(柳城縣)이었고 요서군(遼西郡)에 속하였었다. 비록 광녕현이란 명칭이 요 대에 지어졌다고 하지만 진(晉) 대의 광녕군(廣寧郡)과 명칭이 같으므로 같은 지역이거나 최소한 인접한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한서』(전한서)와 『후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상곡군에 영(甯)/녕(寧), 광영(廣甯)/광녕(廣寧)/광건(廣康) 등 2개 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뒤에 있는 지명은 옛 지명임). 즉, 광녕이란 지명은 한 대에도 있었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대의 상곡군에 속했던 영·광영 등 2개 현이 전한 대의 요서군 유성현에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는 요 대의 영주(한 대의 유성현)에 광녕현을 설치하면서 영·광영 등 2개 현이 광녕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진서』 지리지에 따르면 진 대의 광녕군(廣寧郡)에 속하는 현은 하락(下洛)·반(潘)·탁록(涿鹿) 등 3개 현인데 전한 대부터 상곡군에 속해있던 현들이다. 그러나 후한 대의 상곡군에 같이 남아 있었던 영(甯)/녕(寧), 광영(廣甯)/광녕(廣寧)/광건(廣康) 등 2개 현은 보이지 않고, 진 대의 상곡군(上谷郡)⁵²⁾에는 저양(沮陽)과 거용(居庸)만 남아있다.

즉, 후한 대의 상곡군에는 저양(沮陽)/저음(沮陰), 반(潘)/수무(樹武), 거용(居

52)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上谷郡 秦置, 郡在谷之上頭, 故因名焉. 統縣二, 戶四千七十. 沮陽 居庸

庸), 구무(婁婁), 영(甯)/녕(寧), 광녕(廣甯)/광녕(廣寧)/광건(廣康), 탁록(涿鹿)/포록(拂陸), 하락(下落)/하충(下忠) 등 8개 현이 있었는데 진 대에 하락·반·탁·록 등 3개 현은 광녕군이 되었으며, 저양·거용 등 2개 현은 그대로 상곡군에 남아 있고, 구무·영·광영 등 3개 현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무·영·광영 등 3개 현은 진 대에 주변 다른 군이나 다른 현에 합병되었거나 폐하여졌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명칭이 같은 광녕군에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서』(전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전한 대의 요서군⁵³⁾에 양락(陽樂), 해양(海陽), 영지(令支), 비려(肥如), 임투(臨渝), 저려(且慮), 신안평(新安平), 유성(柳城), 빈종(賓從), 교려(交黎), 호소(狐蘇), 도하(徒河), 문성(文成), 참(參) 등 14개 현(縣)이 있었으나, 후한 대의 요서군⁵⁴⁾에는 양락(陽樂), 해양(海陽), 영지(令支), 비려(肥如), 임투(臨渝) 등 5개 현만 남아 있었다.

즉, 유성현은 후한 대와 진 대의 요서군에 속하지 않았다. 빠진 현들은 다른 현과 합병되었거나 폐했을 수도 있으나 전쟁으로 빼앗긴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서』 지형지에 따르면 북위 대에 유성현에 영주⁵⁵⁾를 두었으며 수·당 대에 다시 유성현에 요서군(遼西郡) 또는 영주(營州)를 두었다. 또 요(遼) 대에 유성현에 영주를 설치하였는데 광녕현 1개 현을 다스렸다. 따라서 한 대의 유성현 인근에 있던 상곡군의 구무·영·광영 등 3개 현이 진대의 광녕군에 속했다가 요 대의 광녕현(유성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요 대의 영주 광녕현의 명칭은 전한·후한 대에 걸쳐 존재하던 영

53) 『한서(漢書)』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遼西郡, 秦置. 有小水四十八, 并行三千四十六里. 屬幽州. 戶七萬二千六百五十四, 口三十五萬二千三百二十五. 縣十四, 且慮, 有高廟. 莽曰鉏慮. 師古曰 : 且音子余反. 慮音廬.」 海陽, 龍鮮水東入封大水. 封大水·緩虛水皆南入海. 有鹽官. 新安平, 夷水東入塞外. 柳城, 馬首山在西南. 參柳水北入海. 西部都尉治. 令支, 有孤竹城. 莽曰令氏亭. 應劭曰 : 「故伯夷國, 今有孤竹城. 令音鈴.」 孟康曰 : 「支音柢.」 師古曰 : 「令又音郎定反.」 肥如, 玄水東入濡水. 濡水南入海陽. 又有廬水, 南入玄. 莽曰肥而. 應劭曰 : 「肥子奔燕, 燕封於此也.」 師古曰 : 「濡音乃官反.」 賓從, 莽曰勉武. 交黎, 渝水首受塞外, 南入海. 東部都尉治, 莽曰禽虜. 應劭曰 : 「今昌黎.」 師古曰 : 「渝音喻. 其下並同.」 陽樂, 狐蘇, 唐就水至徒河入海. 徒河, 莽曰河福. 文成, 莽曰言虜. 臨渝, 渝水首受白狼, 東入塞外. 又有侯水, 北入渝. 莽曰馮德. 師古曰 : 「馮讀曰憑.」 參, 下官水南入海. 又有揭石水·賓水, 皆南入官. 莽曰選武. 師古曰 : 「參音力追反.」

54) 『후한서』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遼西郡 秦置. 雒陽東北三千三百里. 五城, 戶萬四千一百五十, 口八萬一千七百一十四. 陽樂 海陽 令支 有孤竹城. 伯夷·叔齊本國. 肥如 臨渝 山海經曰 : 「碣石之山, (綱)[繩]水出焉, 其上有玉, 其下多青碧.」 水經曰在縣南. 郭璞曰 : 「或曰在右北平 驪(城)[成]縣海邊山也.」

55) 『위서』 지형지 권106상 :

營州治和龍城. 太延二年(436년)爲鎮, 眞君五年(444년)改置. 永安末陷, 天平初(534년)復. 領郡六 縣十四 戶一千二十一 口四千六百六十四(永安이 없으므로 太安 455~458년인 것으로 보인다)

(甯)·광녕(廣甯) 등의 명칭을 다시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칭을 다시 썼다고 해서 그 해당 지역까지 광녕현에 반드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대에 요서군과 상곡군이 인접해 있었으므로 구무·영·광영 등 3개 현은 진 대에 광녕군에 속했다가, 요 대에 광녕현(유성현)에 포함되었거나 최소한 광녕현(유성현)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 대의 광녕군과 한 대의 구무·영·광영 등 3개 현은 한 대의 유성현(요 대의 광녕현) 동쪽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대의 요서군(유성현) 동쪽에 상곡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성현은 현재의 안택현(安澤縣)으로 비정할 수 있다.⁵⁶⁾ 왜냐하면 『신당서』 지리지에 따르면 유성현에 당 대의 영주가 있었으며 영주는 연군성(유주)에서 서쪽으로 180리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180리는 당척 1리=540m와 굴곡지수(x)=1.725를 활용하면 직선거리가 $180\text{리} \times 540\text{m} \div 1.725 =$ 약 56km이며 4백만분의 1지도에서 1.4cm인데, 앞서 III장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유주(연경)로 비정한 둔유현에서 서쪽으로 1.4cm되는 지점에 안택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역과 지형에 따라 굴곡지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굴곡지수(x)=1.725를 기준점으로 삼아 원근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굴곡지수가 $\pm 10\%$ 변동될 수 있다면 위에서 산출한 56km 대신에 50~62km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4백만분의 1지도에서 둔유현으로부터 서쪽으로 1.4cm되는 지점에 안택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성현(영주)은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명으로서 안택현으로 비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유성현(영주)의 위치가 반드시 현재의 안택현 행정구역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택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주변 일대를 의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고대(古代) 도읍이 멀지 않은 인근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고대(古代) 도읍지를 벗어난 지역에 현대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명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록(涿鹿)이 속했던 진 대의 광녕군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성현으로 비정한 현재의 안택현(安澤縣)의 동쪽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당 대의 회융현이 탁

56)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185쪽.

현 서쪽 인근지역에 있었으므로 탁록이 속한 진 대의 광녕군은 현재의 안택현과 고평시 사이에 위치했던 것으로 비정할 수 있다.

즉, 탁록(涿鹿)은 전한·후한 대에 상곡군에 속해 있었으며 진 대에 광녕군에 속했으므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성현의 동쪽 지역이면서 탁현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특히 『사기』의 주해(정의)에 따르면 탁록(涿鹿)은 회융현의 동남쪽에 있어야 하며, 탁현으로 비정한 고평시의 동쪽 지역은 탁군에 속하는 지역이므로 탁록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탁현의 서쪽에 있어야 한다.

한편, 『위서』 지형지에 따르면 유성현은 북위 대에 창려군(昌黎郡)⁵⁷⁾에 속했었는데 창려군에 속한 현 중에서 정망현(定荒縣)에 룡두산(鹿頭山)이 있었다. 또 인접한 건덕군(建德郡)⁵⁸⁾ 석성현(石城縣)에 백록산사(白鹿山祠)가 있었다. 따라서 룡두산 또는 백록산이 유성현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탁록현(涿鹿縣)은 인근 탁현(涿縣)의 지명과 룡두산 또는 백록산의 산 이름이 합쳐져서 붙여진 지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북위 대의 정망현과 석성현은 『한서』(전한서), 『후한서』, 『진서』 등에 없었던 지명들이므로 북위 대에 새로 붙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탁록현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대의 탁군(탁현)으로 비정한 현재의 고평시와, 유성현으로 비정한 현재의 안택현 사이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탁록현

앞서 II장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당 대의 규주 회융현에서 동쪽으로 56리 거리에 판천이 있었다. 또 판천은 5리를 흘러가서 탁수와 합류하였다.

또 회융현에서 동남쪽 50리 거리에 탁록고성이 있었는데 탁록고성은 탁록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규주 회융현과 탁록고성(탁록현)은 모두 탁현(현재의 고평시로 비정)의 서쪽에 있어야 하므로 규주 회융현은 현재의 고평시로부터 서쪽으로 56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평시 동쪽에는 판천으로 볼 수 있는 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57) 『위서(魏書)』 지형지 권106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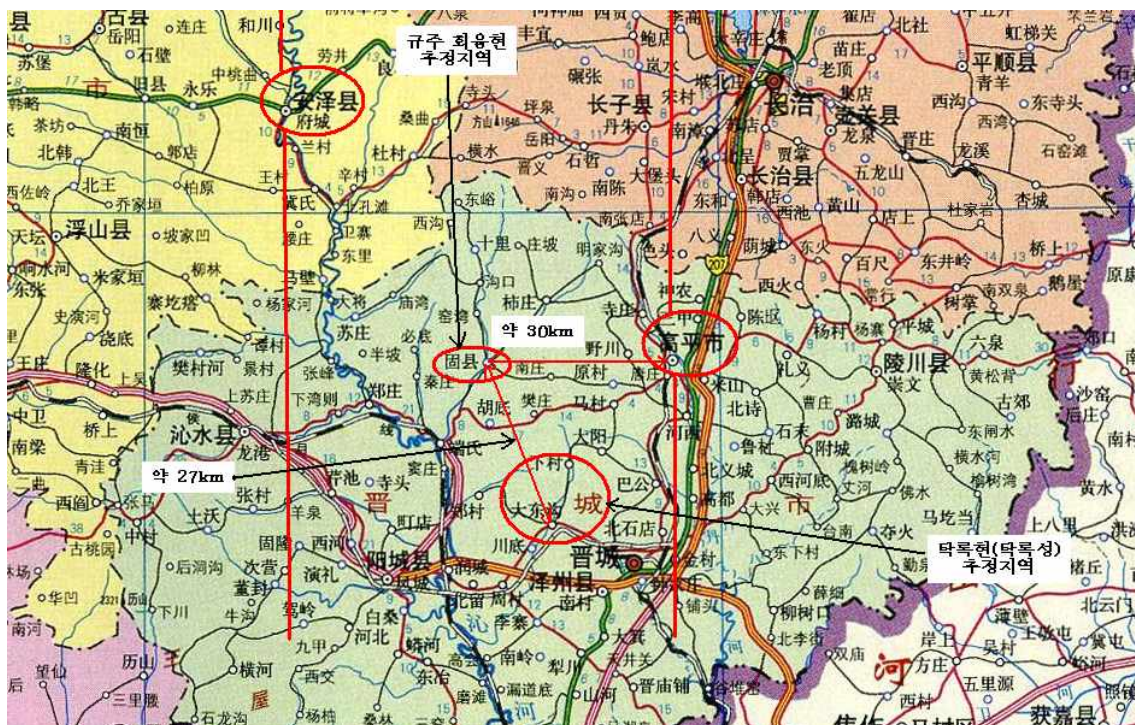
昌黎郡 晉分遼東置, 眞君八年(447년)併冀陽屬焉. 領縣三 戶二百一 口九百一十八 龍城 眞君八年(447년)併柳城·昌黎·棘城屬焉. 有堯祠·榆傾城·狼水. 廣興 眞君八年(447년)併徒何·永樂·燕昌屬焉. 有雞鳴山·石城·大柳城. 定荒 正光末(524년)置. 有鹿頭山·松山.

58) 『위서(魏書)』 지형지 권106상:

建德郡 眞君八年(447년)置. 治白狼城. 領縣三 戶二百 口七百九十三 石城 前漢屬右北平, 後屬. 眞君八年(447년)併遼陽·路·大樂屬焉. 有白鹿山祠. 廣都 眞君八年(447년)併白狼·建德·望平屬焉. 有金紫城. 陽武 正光末(524년)置. 有三合城.

고평시 인근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단하(丹河)가 있을 뿐이다. 즉, 앞서 논한 바와 같이 56리는 $56\text{리} \times 540\text{m/리} = \text{약 } 30.2\text{km}$ 이므로 현재의 고평시로부터 서쪽으로 약 30km 거리에 고현(固縣)이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의 고현 주변에도 여러 현들이 있지만 단하 또는 고평시로부터 거리 상으로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고현의 위치는 지형상으로 주변의 크고 작은 현들을 통괄하기 좋은 중심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현을 중심으로 수 대의 탁군 회용현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당대에는 규주 회용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단하와 심수를 각각 판천과 심하로 비정할 수 있다.

또한, 회용현에서 동남쪽 50리 거리에 탁록고성이 있었으므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고현(固縣)에서 동남쪽으로 $50\text{리} \times 540\text{m/리} = \text{약 } 27\text{km}$ 거리에 대동홍(大東洶)이 보인다. 대동홍은 회용현으로부터 방향은 거의 남쪽과 동남쪽 중간에 해당하나 거리상으로 약 27km에 해당하며 주변에 다른 적합한 지명이 없으므로 대동홍을 탁록고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 일대를 탁록현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림 11] 산서성 지도 일부 / 유주 상곡군 탁록현 추정지역

그런데 『괄지지(括地志)』의 기록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천과 탁수가 만나는 지점이 탁록현의 동북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림 11]에서 탁수가 보이지 않으나 고평시 인근에 탁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탁록성(涿鹿城) 동쪽 1리 거리에 판천이 있으며 그 위에 황제사(黃帝祠)가 있다는 『진태강지리지(晉太康地理志)』의 기록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탁록고성(涿鹿故城)과 탁록성(涿鹿城)이 서로 다른 성인 것으로 추정되며 판천에 인접한 지역에 탁록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의(正義)에서 같은 저자가 주해하면서 성(城)의 명칭을 달리한 것은 서로 다른 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맺는말

치우와 현원이 전쟁을 한 탁록의 별판이 『사기』, 『한서』(전한서), 『후한서』 등에는 유주 상곡군 탁록현이라고 쓰여 있으며, 『진서』에는 옛 상곡군에 해당하는 광녕군 탁록현이라고 쓰여있다. 즉, 상기 4 사서에서 모두 동일하게 탁록의 별판이 유주 탁록현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한 대의 상곡군이 낙양에서 동북 3,200리라고 쓰여 있고, 한 대의 탁군은 낙양에서 동북 1,800리라고 쓰여 있다. 또 『대청광여도』 상에 상곡군이 현재의 북경인 순천부의 서북쪽에 표기되어 있고, 탁록은 순천부 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또한, 『중국고대지명대사전』에는 상곡이 현재의 하북(河北) 역현(易縣)이라고 쓰여 있다.

즉, 『후한서』 군국지의 기록과 『대청광여도』 상의 지명 표기, 그리고 『중국고대지명대사전』의 기록이 모두 서로 다르다. 그러나 『후한서』 군국지 등 지리지의 우선되는 사료이므로 『대청광여도』와 『중국고대지명대사전』 등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지명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근거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앞서 본 논문 II장 2절 및 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후한서』 군국지에서 각 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리수치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삽입된 위사 들임을 알 수 있다. 또 『대청광여도』 상에 표기되어 있는 많은 지명들이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변이되어 현재의 북경 주변 지역에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지명의 올바른 위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각 사서 지리지의 기록이 구절마다 진사인지 위사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기』, 『한서』(전한서), 『후한서』 등에 부기되어 있는 당(唐) 대의 주해(註解)들이 당 대의 규주 회융현과 탁록고성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었으며, 각 사서 지리지에 흩어져 있는

간략한 지리(地理) 기록들을 연계시킨 결과, 탁록의 별관(탁록현)은 한(漢)대의 탁군(탁현)인 현재의 고평(高平)시 서남쪽 인근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역사적 지명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는 최종적으로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연구 결과는 현장의 유적 탐사에 선행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오로지 사서상의 기록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끝>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규원사화(揆園史話)』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위서(魏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요사(遼史)』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

『중국고대지명대사전(中國古代地名大詞典)』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Abstract】

A Study to verify the Location of Tak-lock(涿鹿)

Kim, Jin-Kyoung

Ph. D. of National Studies, National Uni. of Pukyong

There was a war between Hun-won and Chi-woo on the field of

Tak-lock according to *the Sa-gie* and *Gue-won-sa-hwa*. The Tak-lock was written to be on the Tak-lock Hyoun in Sang-gok Goon on *the Sa-gie, Han-Seo, After-han-seo* etc. And the Tak-lock was written to be on the San-seo Dae-dong Boo on *the Han-dan-go-gie*. Also is the Tak-lock marked with the Sang-gok west of the Sun-cheon Boo which is the present Book-kyoung city on the map of Dae-cheong-gang-yeo-do.

On the other hand, is the grave of Chi-woo written to be in the castle of Gam-hyang on the Seo-jang Hyoun in the Dong-pyounng Goon according to the annotation(Geep-hae, Eong-so) of the *Han-seo geography*. However is it too far depart from east to west between the Dae-dong Boo in the San-seo and the Dong-pyounng Goon in the San- dong rather than from south to north. And the distance come to several hundred km.

The location of Tak-lock could be full of the suggestions from the viewpoint of what kind of war the war between Hun-won and Chi-woo is, or how the history of that war could be illustrated.

So, it was tried to seek the location of Tak-lock in the Sang-gok Goon, and it could be found to be the place which is near west of the present Go-pyounng city in the San-seo Sung.

Key ward: Tak-lock(涿鹿), Sang-gok(上谷), Chi-woo(蚩尤), Hun-won(軒轅), war, Go-pyounng(高平)